

깊은 감동 주는 '과학소설' 백미

키이즈의 「알게논의 무덤위에 한송이 꽃을」

드물게 감동적인 이 작품 「알게논의 무덤 위에 한송이 꽃을」은 주로 생리심리학적 이론의 적용을 제재로 한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다. 독자들 중에는 SF란 말만 들어도 난해한 자연과학 이론의 유희나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공격하는 외계인 얘기쯤으로 생각하고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많지만, 특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 책의 일독을 강력히 권한다. 성격상 100% 허구일 수밖에 없는 SF이면서도, 이처럼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얘기는 상당히 접하기 어렵다.

작자인 다니엘 키이즈는 매우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로, 1972년 이래 오하이오 대학의 영어교수로 재직중인데, 이 작품은 1959년에 증편으로 처음 발표하자 곧 SF에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휴고상(Hugo Award)을 수상했고, 다시 같은 제목으로 1966년에 장편으로 고쳐 발표하고 난 후엔 휴고상과 쌍벽을 이루는 네뷸러상(Nebula Award)을 수상했다. 또한 이 작품은 1968년에 '찰리(Charly)'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으며, TV드라마로 만들어 지기도 했다.

주인공 찰리 고든은 30대 후반의 정신박약 아이이며, 천재 이상의 수준으로 지능을 높이는 수술 실험의 대상이 되는데,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실험을 받기 전후의 자필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알게논은 그보다 먼저 수술을 받았던 실험용 쥐의 이름이다.

제과점에서 청소를 하는 정박아 고든은, 특수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받아 실험 대상으로 선택된다. 지능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몰랐던 인간의 여러

제과점에서 청소를 하던
주인공 고든은 특수실험으로
천재 이상의 지능을 갖게 되지만,
지능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여러 부정적 측면들을 깨닫게 된다.
결국 그는 자신에게 행해진 실험이론을
스스로에게 다시 적용하여
원래의 정박아로 돌아가고 만다.

가지 감정과 성격들, 특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 과정은 정박아일 때 그의 잠재지역 속에 각인되었던 사건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이었나를 하나 둘씩 알아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천재 이상의 두뇌를 가지게 된 고든은 우여곡절 끝에 자신에게 행해진 실험이론의 완벽한 마무리 연구에 들어가고 마침내 '알게논-고든 효과'를 발견하고는 그 이론대로 다시 원래의 정박아가 되어 버린다.

이 얘기의 후반 부분은 몹시 감동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서도 과연 무엇이 이토록 감동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선 선뜻 대답이 안 떠올랐다. 찰리의 처지에 동정이 가셔있다고 여겼지만, 문득 우리들이, 끊임없이 자기모순과 인간다움의 추구라는 고통스런 굴레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불쌍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식과 위선의 굴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들의 껍데기가 자꾸자꾸



벗겨지는 느낌이였다. 가식이란, 따뜻한 인간성이 결여된 메마른 지식의 힘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실감하며 살고 있다. 전인류를 몇번이나 멸망시키고도 남는 양의 핵병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편에선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도 굶주리고 있다.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발가벗겨진 자아, 이것이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느낌이였다.

역설적으로 암시되는 지성의 중요함도 주의 깊게 독자라면 인식했으리라 생각한다. 인간은 뜨거운 가슴과 현명한 지능을 가진 존재라는 근본적 사실은 이 작품의 논리상 전제이기도 하다.

두가지를 각별히 언급하고 싶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중에 정박아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이 점은 나 자신의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감히 어느 정도나마 헤아리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더 많이, 더

깊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많으리라 확신한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형식의 글들을 포괄하는 장르, 과학소설(SF)에 대한 것이다. 대개 그렇듯이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여겨지는 '공상과학소설'이라는 명칭은, 그 '공상'이라는 말이 연상시키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이 땅의 과학소설이 아직까지도 황무지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주요 원인임이 틀림없다. 지면상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서구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과학소설은, 이제까지의 찬란한 발자취가 발달된 문명과 문화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아직도 '활짝 피어나지 않은 꽃'이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이번 기회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방대한 가능성을 이 땅에서도 활짝 열어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과학소설에 입문하기에는 더 없이 알맞다고 생각된다.

박상준

대학생 ·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56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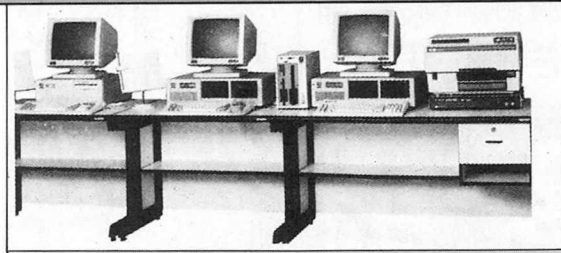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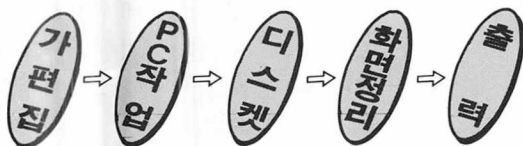
출판의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등과 서체, 굵기 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드록 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 / 카드록 / 박스 / 학위논문 / 식순지 / 사보 및
월간지 / 각종 안내장 / 단행본 및 전집류 / 각종 홍보물제작

